

## 제 2 강 있다는 것과 안다는 것

### ◆ 2교시 존재론과 인식론의 대답

#### ▲ 형이상학으로 언어를 보자면 - 범주와 한정사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해 보면요. 우리 주변에서 구성돼 있는 실체 하나만으로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어요.

실체가 있다는 것은, 실체 주변의 특징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마련이고. 좀 전에 사물로서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 물질적인 특징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형용사라고 하였고, 또 한정사를 얘기했었잖아요. 지시사나 소유사와 같은 것이 한정사에 해당이 돼요.

지금은 우리가 넓은 의미, 추상적인 의미 혹은 사변적인 범주로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언어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하고 있는 언어는 ‘랑그’이죠. 랑그를 생각해 보세요. 한국어를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형용사와 한정사는 서로 구별을 해요. 학교문법에서 얘기할 때는 똑같이 봐서 소유사도 소유형용사라고 많이 불러요. 아마 영문법 배우실 때 그렇게 많이들 배우셨을 거예요. 소유형용사, 지시형용사.

하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요. 지시사는 형용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소유사도 형용사가 아니라 다른 범주에 속해요. 이것들은 한정사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영어를 생각해보시더라도 한정사와 형용사가 나란히 올 수는 있지만, 한정사 두 개가 연달아 올 수는 없어요. 한정사는 한 번에 하나씩만 올 수 있죠.

거기다 서양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가,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집합으로서 전체를 하나의 개념으로 부여하는, 개념 안에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상을 전체로 다 묶는 대상이 있느냐,

아니면 그 중의 일부만을 이야기하느냐, 그것도 한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한정하느냐 그 중 일부만을 한정하느냐.

이게 서양어에서의 관사 개념이에요. 관사라는 것이 그냥 학생들 골치 아프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이한 사고의 결과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정관사다, 부정관사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영어에서도 그러하고 다른 언어에서는 또 다른 관사들이 더 있는데.

정관사라는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집합개념이에요. 그 집합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정관사를 얘기할 때 이런 예를 들 수 있어요. 전체를 다 얘기하는 ‘the man’은 인

간, 인류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것이고,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느 한 사람을 딱 집어서 ‘한 남자’를 의미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죠.

이게 전통적인 의미의 문법에서의 설명, 규범 문법이에요. 있는 것을 보고서 기술해 놓은 것.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수학적 집합의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집합의 정의를 내려주면, 거기다 어떤 개념을 부여하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만일 그것이 인간이 된다고 한다면 ‘the man’은 ‘인류’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뒤에다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지칭하는가에 따라서 어제 만난 남자를 말하게 될 것 같으면 ‘한 사람’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되든 간에 정관사를 넣게 되면, 이것이 한 명을 지칭하든 여러 명을 지칭하든 구체적인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개념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돼요. 서양어의 경우에 그런 것이죠. 한국말에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처음에 영어 배울 때 관사를 어려워하잖아요. 한국어에는 이런 범주가 없어요.

우리가 수학에서 집합을 보시면 무한 집합도 있지만 원소가 하나 뿐인 집합도 있어요. 그리고 공집합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부여하든 간에 우리가 개념을 부여하여 하나의 실체를 만들었다면 거기에는 항상 서양어라면 정관사가 들어가야 해요. 정관사가 들어갈 수 없는 단어는 없어요.

반면에 부정관사가 들어갈 수 없는 대상은 있어요. 예를 들어 영어의 부정관사 a(n)을 보면요. 이것은 집합에 대한 하나의 원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의 남자, 하나의 여자를 말할 것 같으면 a man, a woman이라고 해야죠.

그런데 만약에 집합을 바꾸게 되면, 그러니까 집합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X = \{x | x \text{는 자연수}\}$  이라면,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the man과 똑같은 거예요. 무한집합이에요. 반면에  $X = \{x | x \text{는 } 1 < x < 3 \text{인 자연수}\}$  이렇게 더 구체화시킨 것은요, 이것은 ‘내가 어제 만난 남자’의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래도 똑같이 the man과 같은 똑같은 집합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한 X의 원소에는 2 하나 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이 원소에다가는 정관사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소가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의 남자, 이렇게 하나라는 개념, 다시 말해 단수라는 개념은 복수라는 개념이 있을 때 나오게 된 상대적인 개념이지 복수가 없는 데 단수가 있을 수는 없어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상대적인 것이지 유일한 대상을 말할 때 ‘하나의’라는 말은 안 써요. 예를 들어 현재 우리가 발견한 지식으로는 태양이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에다가는 ‘the’라는 정관사를 쓰는 거지 ‘a’는 쓰지 않아요. 못 쓴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조심해야 해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논리적인 차원에는 역사적인, 다시 말해 실증적인 차원의 생각과 혼동하면 안 돼요. 아까 영어의 예를 든 것은 구체적인 예시를 위해서 한 것이지 논리라는 것을 역사적인 실증적인 것과 결부시켜 결론지으려 하면 안 돼요.

마치 과학자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흔들리는 출렁이는 물을 보인다고 해서, 그 출렁이는 물이 화학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보여주어야 하니까 실제의 물건을 보일 뿐이지요.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단수라고 하는 것은 복수가 있기 때문에 나온 개념이고, 복수도 역시 단수가 있기 때문에 생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a sun'이라는 말은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규범 문법에서 틀린 것이죠.

그런데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집합을 바꾸면 돼요. 항상 현재의 문법에 맞춰서는 문학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수학이지 문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학을 가지고 문학을 할 수는 없죠. 자연언어를 가지고 문학을 할 수가 있죠. 그 이유가 뭔가요?

자연 언어라고 하는 것은 대상과 언어가 1:1로 딱 붙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만 있을 뿐이죠.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고민 고민하다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받아들여졌어요. 그 때 본 태양이 있어요. 반대로 오늘 실연을 당했어요. 헤어지고 동해바다에서 바라본 태양하고 같지 않죠? 결코 같은 태양이 아니에요.

태양에 내 마음을 대용하는 거죠. 태양이 항상 하나지 뭐 여러 갠 가요? 그치만 오늘의 태양은, 내일의 태양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문학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하냐면, 실체와 언어가 1:1로 붙어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논리라는 것은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상대적이고 비어있는 껍데기인 것이지, 틀리지 딱 붙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의 영어에서는 'a sun'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sun이라고 하는 단어에 부정관사는 안된다' 라는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이 어색하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저 사람은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당연하죠. 그것은 논리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역사적인 차원, 실증주의적인 차원이에요. 현재의 영어에서는 물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얘기했던 랑그의 차원하고, 논리적인 의미에서의 추상적 틀, 논리적 틀로서의 언어는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소쉬르가 언어학의 대상으로 잡았던 랑그가 아니라는 것이죠.

### ▲ 형이상학으로 언어를 보자면 - 사건과 동사

그래서 그런 범주들이 가능하잖아요? 반면에 또 다른 차원의 범주를 얘기해보면요. 아까 얘기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건’은 철학에서 많이 배제해왔었어요. 그런데 20세기 와서 사건이 철학의 한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개념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사건이 바로 개념이 되지 않아요. 이게 옛날 사고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시니피에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 빈껍데기를 만들어놓고 그 안에 투영했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관념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관념은 언어화된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기호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사건을 기호화시킨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동사예요. 제가 아까 말한 명사, 여기서 말하는 동사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구체적인 결과가 아니예요. 범주로서의 틀이지.

그렇다면 사건이라는 것은 시간이란 얘기 아니예요? 시간 안에 있는 것, 역사 안에 있는 것이고 시공에 제한돼 있는 게 사건이에요. 지금-여기, now and here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사물에다가는 적용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우리 아까 ‘단단하다, 딱딱하다’가 사건에 적용할 수 없었듯이 마찬가지로 사물에다 적용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테이블’을 논할 때 ‘언제’와 같은 물음은 불가능해요. ‘어떤’과 같은 물음은 가능해도. ‘넘어졌어’에는 ‘언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항상 사건은 시공간개념과 함께 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유추해 낼 수 있는 게 우리가 문법에서도 동사는 필연적으로 시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엄밀하게 논리학적으로 얘기한다면, 동사의 원형이라 하여 be나 have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be로 예를 들게요. 우리가 be가 동사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be는 동사가 아니예요. 왜냐하면 시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의 흐름이라는 건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런데 be는 그 시간개념을 쏙 빼내어 추출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명사형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동사의 보어로 들어갈 수는 있을지언정 be자체로는 동사로 절대 쓰일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동사는 반드시 시제를 반드시 넣어야 동사라 할 수 있죠. 그리고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도. ‘어디에’ 위치하는가. 그런 것들이 시간 개념에서 그리고 공간 개념에서 사건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들이예요.

이것들이 우리가 언어학에서 말할 수 있는 범주라는 것이예요. ‘구체적으로 형용사의 위치가 어디에 놓여야한다’ 이것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규범 문법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철학에서 말했던 범주들의 연장선상에서 현대 언어학을 가지고 재조명했을 때 나타나는 개

념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범주라고 하는 것, 형용사와 한정사. 한정사에도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동사의 경우에도. 시공의 개념이 바로 동사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언어에서든 범주의 개념에서는 명사와 동사가 없을 수 없어요. 아마 명사가 없는 언어는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동사 없는 언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개념차원에서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최소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언어들에는 범주 차원에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바로 부사라고 하는 것인데, 부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에 종속되지 않고, 사실 형용사는 명사에 종속되는 개념이고 시공개념은 동사에 종속되는 개념인데. 부사라고 하는 것은 양 쪽에 종속되지 않는 또 다른 틀이에요. 범주 차원에서는.

그런데 개념차원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부사들도 역시 술어 안에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범주차원에서는 이 세 가지 범주로 나뉘요. 이 세 가지 범주는 한국어든 영어든 스페인어 불어도 그렇고 어떤 언어에서든 해당되는 것이예요.

#### ▲ 범주를 통해 본 시니피에의 세계

자 그래서 이러한 범주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시니피에의 차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거쳐서 나오는 것이 관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니피에가 어느 사회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어 역사화되느냐, 실증화되느냐에 따라서 그 틀로 찍어낸 실제물들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 세계는 우리에게나 아프리카인에게나 유럽인들에게나 다 똑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관념 세계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시니피에라고 하는 틀이 역사화되는 과정에서 다르게 역사화되기 때문에, 범주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범주라고 하는 것 자체는 추상적인 개념이고 공통적인 개념이에요.

그렇지만 아까 예를 들었던 형용사가 명사의 앞으로 가는가 뒤로 가는가, 혹은 목적어가 동사의 앞으로 가는가 뒤로 가는가와 같은 문제들은 언어마다 달라져요. 그런 세부적인 문법들은 달라지고요. 분사 같은 개념들, 한국어에는 분사가 있나요? 현재 분사, 과거분사들은 한국어에 없죠. 하지만 서양어에서는 이것이 굉장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게 철학에서도 사실 크게 작용해요. 그래서 철학이 달라져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라는 것에는 현재와 과거라는 것과 능동과 수동의 의미까지 같이 부여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안 그랬으면 서양사람들의 사고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꼭 과거는 수동이고 현재는 능동이 되어야 할까요? 그 범주의 구속 때문에 서양 사고의 체계가 달라지고 그런 것이죠. 어떻게 보면 현상학이나 이런 사상들도 이 근거 안에 있는 거예요.

의식 작용이 있다면, 이것이 동사죠? 의식에 대상이 있고, 의식하는 주체가 있고. 이게 다 뭐예요? 동사의 원형과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그 삼각 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소쉬르가 시니피앙과 시니피에를 애기한 것도 불어에서 그렇게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런 구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관념 세계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관념 세계가 달라진 이유가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범주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역사화 되는 과정 때문이에요. 역사화되는 것은 필연적인 거예요. 우리가 역사에서 벗어나서 살 수는 없어요. 학문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잠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지.

마치 물을 H와 O로 분리하는 것처럼, 마시는 물에 H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잠시 학문을 하기 위해서 분리했듯이 역사를 떼어 놓은 것이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마시는 물은 H가 아니라 여기 출렁거리는 이것을 마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실제 언어는 역사 안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념 세계라는 것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 ▲ 실재의 다의성

자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문제 되는 게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것. 그리고 관념을 가지고 개념화시킨다는 것.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범주화되기 이전 세계와 동일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해요.

다시 말하면, 있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알까요? 그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범주화시키기 전의 세계가 곧 개념 세계로 그대로 될 수 있을까요?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실재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점이에요. 아까도 플라톤의 실재라고 하는 것을 말했지만, 플라톤이 실재라고 말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있다가도 없어질 그것이 아니라 이데아라고 표현할 수 있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세계라고 했잖아요. 영원한, 철수가 아니라 인간.

그게 실재라고 하는데, 실재라고 하는 개념이 변해요. 더군다나 일상 대화에서 실재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해요. 추상적인 것은 오히려 가상의 세계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을 실재라고 해요. 플라톤 시대하고 거꾸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책상이 있는 것이죠. 플라톤에게는 없는 것이었지만요. 있다는 것, 그게 이제 무엇이나. 한 마디로 하면 존재라고 하는 것, 존재의 대상 그리고 존재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물의 존재, 시계의 존재, 가방의 존재.

## ▲ 형이상학의 다의성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아까도 말했지만 철학이라는 것은 유일과 원천을 향한 탐구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무쌍한 다양한 존재가 아니라, 존재라는 것 자체의 존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형이상학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아시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이상학이라는 말은 안 썼죠?

많이 알려져 있는 바로, 형이상학이라는 말, 메타피지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피지카Physica라는 책을 썼는데 사후에 기원 후 1세기 경이라고 하죠, 보통. 아리스토텔레스 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 이 책은 피지카 뒤에 읽어야 하겠다. 라고 해서 뒤에다 둔 것에 ‘메타피지카’라고 말을 붙인 거죠.

처음에는 ‘메타피지카’로 붙어있는 단어는 없었던 거죠. 다 ‘메타 피지카’로 ‘피지카 다음으로’라는 뜻이었는데, 그랬던 것이 두 개가 붙어서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메타피직 metaphysic’이라는 말이 아예 생겨버리면서 기독교 철학에서 감각적인 세계, 덧없는 세계가 아닌 이성적인 세계를 지칭하면서 피지카의 반대되는 말로 메타피지카가 쓰인 것이죠.

그게 존재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연구하는 게 된 것인데 사실 ‘메타’라는 말도 참 다양하게 쓰여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무엇을 넘어서서, 다음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생긴 말이 메타피지카이고 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형이상학이라는 말을 쓴 것이고.

그런데 이런 뜻으로 쓴 것 말고 우리가 ‘메타언어’라는 말도 쓰잖아요. 결국 언어학이 ‘메타언어’예요. 학문을 뜻하는 단어에 가장 많이 쓰이는 접사에 -logy가 있잖아요. biology, sociology 등등. 그 -logy라는 게 logos이죠? 말이에요 결국.

다시 말하면 이해하기 위해서 말로 만들어 관념화시킨다는 얘기죠. 언어학은 말을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으로서의 말은, 메타언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언어학 같은 경우가 그렇죠. 말을 말로 설명하는 것.

또 반면에 메타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메타 모프- 모포morph- 이런 접사가 형태를 뜻하잖아요. 메타모프로 쓴다면 어떤 의미인가요? 변형이라는 의미로 쓰여요. 희랍어의 메타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몇몇 학자들의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메타피직을 그런 의미로 써요. 피직을 변형시킨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항상 보면 대립관계가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칸트 얘기가 다시 나와야하는데. 이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할게요.

## ▲ 형이상학의 위기 - 선험적 주제

무엇이 존재하느냐라는 얘기를 하다보면 형이상학의 발전이 어떻게 보면 칸트를 기점으로 해서 파괴라는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결정적으로 칸트에 오면, ‘형이상학이 필요한가’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대립해 오던, ‘안다는 것’과 ‘있다는 것’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 볼 수 있냐면요. 아까 범주라는 것을 칸트가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으로 인해 인간을 선험적인 주체라는 말로 표현하죠.

선험적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로 수학적 지식을 들 수 있는데, 범주라는 것은 배워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범주 안에 끼워 넣은 내용물이야 경험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지만 그 틀 자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이예요.

그런 의미에서 선험적 주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선험적 주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판단해요. 미리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틀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것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경험된 것들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아까 시니피에의 발견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변증법적 틀 있잖아요? 실제 세계와 구조물, 틀, 범주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빠져 나와서 실제 세계와 근접하게 가기는 하지만 여전히 실제와는 같을 수 없는 그런 관념 세계.

이 삼각구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 다시 얘기하고 있는 실제 세계와 관념 세계는 같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혼동하기 시작하면 바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틀, 범주.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내는 선험적 주체. 그게 먼저냐 아니면 경험이 먼저냐. 이런 논란.

이 논란은 결국 지금 얘기했던 변증법적인 삼각구도가 없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혼동들이었어요. 경험이 먼저냐, 틀이 먼저냐. 이 두 개가 아니예요. 세 개인 것이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험이라는 것과 관념이라는 것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현재 언어학에서의 심층, 표층 그 문제도 이것과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 ▲ 형이상학의 위기 - 촘스키와 심층 구조의 문제

다시 말하면 의미가 문법보다 먼저 있느냐 나중에 있느냐에 관한 논란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촘스키 문법에서 계속 나왔다고. 그것도 똑같은 얘기에요. 이것도 경험 세계와 관념 세계를 혼동하기 때문에 나오게 된 문제들이었어요. 그것은 같지가 않아요. 틀을 통해서 빠져나온 관념의 세계와, 그 전에 있는 그러니까 언어 이전의 세계와는 엄연히 달라요.

그래서 칸트에 오면, 인간이 선험적 주체로서 틀, 범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



고 나오는 것이 세계라고 애길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선 ‘아니다 맞다’가 아니에요. 칸트 본인도 그랬고, 가타부타하던 사람들도 그렇고 모두 두 축만 생각하기 때문에 나온 오해예요.

분명 그 틀 이전에 있는 세계, 그것을 존재라고 부르면요. 그걸 존재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본다면 그것은 분명 경험 세계이고 그 전에 있는 세계이죠. 반면에 그 다음에 나오는 관념 세계는 구조물, 틀, 시니피에 이후의 세계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것은 시간적인 이전, 이후가 아니에요. 다시 역사로 들어가면 안돼요. 그런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선후 관계라는 것이지 시간적인 선후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칸트로 와서,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칸트 이후 존재론은 없어졌다. 인식론이 철학의 중심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예요. 그런 의미에서 형이상학을 파괴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 ▲ 20세기의 형이상학 실험

물론 20세기 와서 다시 또 형이상학을 베르그송이나 이런 사람들이 형이상학을 새로운 의미로 다시 개척을 해낸 사람이지만, 그런 차원에서 칸트가 인식론을 중심으로 세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칸트가 경험론과 합리론 사이에서의 대립에 완전히 종지부를 찍었지만, 그것에 대한 또다른 논란이 나온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 개의 축이나, 두 개의 축이나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칸트이후에 대한 논란은 바로 세 개의 축을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 논란이예요. 그리고 20세기 와서 특히 프로이트 이후로 인문과학 안에서 임상의학과 결부하여 실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지난 시간 실어증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런 것을 통해서도 많은 실험을 해요. 그런데 그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한 마디로 말하면 함정을 파는 거예요. 함정을 파서 거기에 툭 떨어지게 되면, 아 그럼 이 전제가 맞구나. 그런 의미에서 실험이라는 거죠. 머리를 분해해보는 게 아니라.

여기다 함정을 팠는데 안 빠져요. 그럼 아니네, 내가 틀렸네. 이런 식의 실어증 임상실험을 통해서도 경험세계와 실제세계와 관념세계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현대에 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이상학이 많이 쇠퇴해요. 과거에는 철학이 곧 형이상학이었는데 20세기에 와서는 형이상학이 그만큼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죠. 오히려 인식론이 그 중심에 서고요.

### ▲ 칸트의 비판철학, 형이상학의 종말?

그 이외에 과학철학이라는 것도 크게 말하면 인식론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역사철학이라는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지만 어쨌든 최소한 인식에 관계되는 그런 문제를 놓고 보자면, 존재론과 인식론 사이에서의 어떤 대답은 받은 칸트가 풀어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논란들은 언어학에서 발견해 놓은 시니피에의 개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부터 있던 개념이에요. 그런 문법이 아니고 범주, 틀이라는 개념에서의 문법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삼각구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관념의 세계와, 다시 말하면 안다는 세계죠? 그리고 존재한다는 것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칸트가 얘기 했었죠? 실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과학이 발전하게 되면서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있죠.

무엇이냐면, 없는 줄 알았는데 발견하게 된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허상이었던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나요? 실제 사물들의 세계는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의 인식의 틀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 밖에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실제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걸 불어에서는, 음 영어로 옮긴다면 reality하고 real을 구별하기도 해요. reality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다시 말하면 틀을 통해서 나오게 된 관념세계를 말해요. 반면에 실제 진짜 사물세계는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칸트는 물자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것은 알아 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real이 아니라 reality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관념을 통해 나온 세계 밖에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칸트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칸트가 말한 물자체라는 것도 우리가 다가설 수 없는 세계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칸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새로운 발견들을 해 내었느냐. 물자체의 세계는 계속해서 그 경계선에 허물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뭐라고 할까요, 실증주의적인 방법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가 말한 물자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새로운 지식을 얻어내고 새로운 것들을 우리의 인식 체계 안에 집어넣어도, 그런 경험들 하실 거예요. 그런 경험들 안 해 보셨나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멀어져요. 미스터리 투성이예요. 차라리 우리가 지적인 만족을 가지고 살려면 공부를 안 하는 편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공부를 안 하면 제일 만

족스러운 선택이라고 봐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계속 미스터리만 쌓이고, 마치 동굴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갈수록 더 어둡다는 걸 느끼게 돼요.

다시 말하면 얼마큼, 무엇이 지식의 대상이냐는 문제는 구체적인 이야기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결코 다다를 수 없는 영역은 있다는 것. 그것은 물자체의 세계를 부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물론 그 영역은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지식의 내용은 계속해서 변해요. 그래서 그게 인식이라는 말로, 아까 얘기했듯이 과학 철학이라는 것도 그 안에서 얘기할 수 있다고 했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이지만, 인문과학의 발견 이후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하는 것이 있어요.

인문에다 과학이라는 말을 붙이려면 말이에요. 과학이라는 메소드, 방법론을 잇으면 안 돼요. 대상이 인간이라고 해서 인문과학이 되는 것은 아니죠. 대상은 인간이지만 과학이라는 것은 분석이에요.

우리 음식을 분석하는 것은 맛있다 맛없다와 무관한 거예요. 잘 어우러진 찜뽕이 맛있지 입에 들어갔을 때 면 따로, 고춧가루 따로인 것은 맛있는 찜뽕이 아니에요. 음악에서 화음도 그렇잖아요. 테너 따로 베이스 따로 들리면 그건 음악이 아니에요. 그것이 어우러져 하나로 들렸을 때 그것이 멋진 화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마디로 말하면 지식, 종합적인 지식이에요. 그렇지만 과학은 그게 아니에요. 과학은 다 쪼개는 게 과학이에요. 다 분해하는 거죠. 계속 해서 말하고 있는 역사적인 시각하고 섞이면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해요.

### ▲ 존재론과 인식론의 대립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가치론적인 것도 섞이면 안 된다는 얘기했었잖아요? 전통적으로 철학이라고 하는 것과 가치는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전체적인 역사를 놓고 보더라도 존재론적인 부분이 철학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인식론은 최근 이야기이지만.

그런데 그 존재론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가치론이에요. 가치가 있다, 없음을 논하는 게 철학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과학과 다른 점이 그것이라고. 과학은 엄밀한 의미에서 가치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가치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이에요. 철학에서는 ‘안다, 모른다’도 ‘가치가 있다, 없다’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언어 철학을 얘기한다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어떻게 말하는 것이, 참 거짓을 이야기 하는 것이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되, 철학에서 하는 이야기였어요.

반면에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냐가 아니라, 있는 것을 그대로 분해해 낸 것. 그러니까 과거의 언어를 연구로 하는 대상에서는 맞다, 틀리다가 있었지만 언어학이 다루는 대상으로서의 언어에는 맞다, 틀리다가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든다면, 실어증을 가진 사람의 언어. 실어증을 가진 사람이 쓴 시를 연구하는 것. 어쨌든 분석, 분해를 한다는 점이 과학으로서의 언어학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언어가 이중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메타라는 말을 쓴다고 했죠. 언어가 언어를 해요. 언어로 언어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결국 과학을 한다는 게 그런 것이예요. 언어를 언어화시킨다는 것이죠. 언어화시킨다는 것은 정립시킨다, 관념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에서 에피스테몰로지epistemology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에피스테메- 이것이 희랍어에서 나온 지식이라는 말인데 이게 나중에는 과학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기도 해요. 이렇게 지식, 과학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이 말을 ‘에피스테몰로지’라고 -logy를 붙여, 지식, 과학을 또 다시 ‘말’로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인식론’이라고 하면서 대상이 참 모호해지는 결과를 낳았어요.

이것도 역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역사적인 관점과 분리를 해서 생각해야하는 것인데, 에피스테몰로지라는 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뜻에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것이 그 대상으로 될 수 있는 것이죠. 인식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이런 것.

반면에 이것이 하나로 관념화되고 축적이 되어 하나의 정보 덩어리가 되면, 그 정보 덩어리 들끼리 축적이 되느냐 아니면 긴장관계 중에서 하나가 소멸하느냐, 이런 관계를 논하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요즘 말로 과학 철학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에피스테몰로지의 대상이 돼요.

어떻게 보면 그게 같은 대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토마스 쿤이 과학철학을 얘기할 때 했던 그런 것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의 패러다임이 형성됐다가 융성기를 거치고 쇠퇴기를 거치게 되는데, 그 쇠퇴기라는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출현하여 기존의 패러다임과 충돌하다가 하나는 소멸하게 된다고 과학을 설명하죠.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인간이 대상과 틀과 선형적 주체와의 사이에서의 그런 관계와 상관이 없는, 다시 말해서 순수한 논리적인 차원의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학적인 문제예요. 또 사회학 문제로 다시 돌아가죠?

한 마디로 얘기하면, 지식의 사회학이에요. 그런데 같은 과학철학 분야에서도 칼 포퍼와 토마스 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달라요. 대립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카테고리, 패러다임이 달라요.

칼 포퍼가 말하는 과학철학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 대상이에요. 무엇이 인식이 되고, 그것을 어떻게, 그 사람도 철학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를 얘기하게 돼요. 무엇이 옳은 과학적인 방법이나 그른 방법이나 이런 것.

반면에 쿤이 얘기하는 것은 패러다임 간의 충돌, 그리고 무엇이 남고. 다시 말하면 지식이란 축적이 아니라 긴장과 갈등과 대치 속에 있다는 얘기죠. 전통적으로 대륙과 영미권을 비교해보면, 대륙은 항상 지식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해요.

대립과 긴장 속에서 대치되는 것들로. 그래서 정치도 더 뭐라 할까요. 영미권에 비하면 더 과격하죠. 그런데 영미권은 그런 것을 항상 축적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런 영미권의 문화 안에서 쿤은 비교적 새로운 과학 이론을 냈던 사람이기도 해요.

어쨌든 같은 에피스테몰로지라는 말 안에서, 지금 이 이야기, 토마스 쿤이 얘기한 것은 인식론적인 얘기가 아니죠. 사회학적인 문제예요. 다시 한 번 또 역사적, 실증적 관점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어떻게 하다보면 또 들어가 있고, 어떻게 빠져나왔다 생각해보면 또 들어가 있고. 우리가 언어학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구체적인 언어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것은 실제의 예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가능하지만, 촘스키가 변형문법을 얘기하면서 영어가 심층구조를 가진다고 말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학문할 때 항상 조심해야할 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 더 한다면. 아까 메타라는 말에 관한 얘긴데. 방법이 우선하느냐, 대상이 우선하느냐에 관한 문제. 다른 말로 한다면 아까 틀, 범주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틀이 먼저 있느냐 아니면 대상이 먼저 있느냐. 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이 대상이냐, 아니면 대상이 있으니까 그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틀을 만드는 것이냐. 그 논란이 계속해서 존재해요.

경험론과 합리론의 대립도 그거였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칸트가 중재해 보려했던 것도 그것이고. 칸트 이후에 칸트를 비판했던 것도 또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소쉬르가 했던 여러 가지 작업들 중에서, 그러니까 <일반 언어학 강의>에 들어있는 내용들. 그 안에서 우리가 얼핏 보고 지나갈 수 있는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도 사실 되게 많아요. 무슨 책이든 마찬가지지만.

그 중 하나에 뭐가 있느냐면, 언어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 소쉬르가 이렇게 얘기해요. 대상이 우선하느냐, 방법이 우선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학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문학을 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문학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문학이라는 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상이 있는 걸까요? 이 문제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많은 토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소쉬르에 입장에서 말한다면, 문학의 대상이 미리 있어서 문학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문학이라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상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문학의 대상에 만화도 포함될까? 혹은 외설문학도 문학의 대상일까? 아니면 그림도 문학의 대상일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 보면 나올 수 있는 질문이 ‘문학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에요. 문학이 무엇인지 대답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외설문학도, 만화도, 그림도 문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지금 얘기했던 맥락으로 얘길 해보자면, 대상이 미리 있어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있기 때문에 대상이 있다는 것이 되죠. 이게 소쉬르의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칸트의 입장이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둘 사이에서의 대립 있잖아요? 틀-범주와 실제 사이에서의 대립관계. 이 대립관계는 우리가 항상 만나요. 왜냐하면, 틀에 맞추려 하다보면 실제 대상이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도 제가 문학으로 예를 들었지만, 애매한 무엇이 등장하면 다시 문학이란 게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에 재고가 들어가요.

그것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지면 그걸 가지고 다시 실재를 또 봐요. 이 대화가 무수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이론으로서 문학을 하는 사람들의 일인 것이죠. 다른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죠. 현대 예술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예술이라고 봐야할까? 라는 애매한 것들이 나타나면 다시 예술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살피죠. 그래서 현대 예술가들은 예술의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술의 경계선으로 나아가요. 예술이 어디까지인지를 보기 위해서.

화장실 변기통 갖다 둔 이것도 예술인가? 여자 몸에 페인트 칠하고 굴리는 이것도 예술인가? 애매하다, 그림 예술은 무엇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대화한다는 것이죠. 그런 범주와 실제 사이에서의 대립, 이것이 바로 언어를 가지고 하는 인식론적인 대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